

## 한솔제지, 실수요자 초청 공장견학



한솔제지는 지난 9월 14일 실수요 디자이너, 기획사 및 인쇄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공장초청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Hi-Q IV(은나노)·Hi-Q SC에 대한 제품설명회, 원료투입부터 재단 및 최첨단 물류창고까지의 공장견학, 질의응답의 순으로 이뤄졌다.

한솔제지가 이번 행사에서 공개한 Hi-Q IV는 면성, 뒤킴, 백감도, 블리스터팩을 향상하고 종이 후면에 은나노 코팅처리로 항균력을 향상시킨 제품이고, Hi-Q SC은 고급원료인 펄프와 코팅컬러의 도공량을 증량하여 뒤킴을 대폭 개선한 한편, 육안색상이 희고 선명해 보이는 제품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 한솔제지 측은 "한솔제지는 정례적으로 고객들을 초대하여 공장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산업용지 분야로는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이다"며 "고객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직접 들어보고 제조사와 고객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 무림페이퍼, 새로운 BI 'neo' 로 통합

무림페이퍼와 무림SP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BI: Brand



Identity), 'neo'를 선보였다. 새로운 BI 'neo'는 무림페이퍼뿐 아니라 무림SP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통합 브랜드로 쓰이게 된다. 이에 따라 무림SP의 클린폴라리스가 '네오클린폴라리스'로, COP가 '네오COP' 등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다.

새 BI는 무림의 핵심 브랜드이자 업계 최고의 인지도를 가진 기존 'neo' 브랜드의 위상을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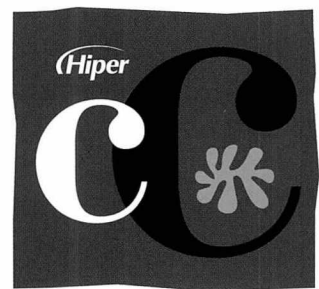
지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제작됐다. BI 'neo'의 블루 컬러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상징한다. 아울러 무림의 새로운 슬로건 'Bridging the Future'가 나타내는 기업 이미지와의 연계성 및 고객과의 기술적인 연결을 표현하기 위해 'e' 위에 등근 라인을 첨가했다.

무림은 지난 1999년 출시 이후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neo' 브랜드를 무림SP 전 제품에도 통합 적용함으로써, 고객들의 한층 넓은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

## 한국제지, 하반기 '하이퍼CC' 신문광고

한국제지는 지난 9월 5일부터 프리미엄 복사지 '하이퍼CC'에 대한 신문광고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지 측은 "신문광고 도자기 편은 'Clean



Corea Copy' 문구와 함께 운학무늬 상감청자 이미지를 등장시켜 '프리미엄 복사용지 하이퍼CC'와 '국산 복사용지의 자부심 하이퍼CC'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았다.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에 대한 한국제지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이번 신문광고는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호제지, 안양물류센터 리모델링



신호제지는 최근 제품보관능력을 높이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양물류센터를 리모델링했다. 7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사를 통해 3개동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아스콘으로 바닥을 포장했으며 외벽 페인트칠과 대형 간판 설치

도 완료했다.

신호제지 측은 “이번 안양물류센터의 리모델링으로 제품 보관 능력이 늘어나 다지종 소량물량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보수공사 및 외관 공사로 대외 이미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신호제지, 2006년 샘플북 제작

신호제지는 최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06년도 샘플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샘플북은 아트지, 백상지, 코트지, 정보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등 76종의 종이로 구성됐다. 그라프리아트지와 노블리안매트지 등 다양한 신제품을 포함하는 2006년도 샘플북은 도서형식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고객의 높은 요구수준에 부응할 것으로 평가되며, 영업거래처 및 실수요업체를 비롯해 샘플북 수령 희망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신호제지, 인쇄사등 초청행사 가져



신호제지는 지난 8월 29일 인쇄사 및 관련업체 담당실무자를 초청하여 신탄진공장, 중앙연구소 견학을 실시했다.

9개 업체에서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견학은 신호제지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견학 참가자들은 공장과 연구소 견학을 통해 인쇄용지 생산과정과 제지관련 기술, 연구 개발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신호제지 측은 “고객사를 초청하는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제지 및 인쇄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향후에도 업계 관계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종이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산시장, 신호제지 오산공장 방문



이기하 오산시장과 시청 관계자들이 지난 9월 6일 신호제지 오산공장을 방문했다. 이 시장의 방문은 오산지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객 일행은 송경근 공장장의 회사소개와 회사 홍보 동영상을 감상한 후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견학 후에는 이 시장의 주관 하에 오산시 공장등록업체 현판식을 가졌다.

## 한창제지 · 신풍제지, 공동생산 · 판매

백판지 생산업체인 한창제지와 신풍제지가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 생산 및 판매에 나선다. 신풍제지는 평택의 백판지 공장을 폐쇄, 생산을 한창제지에 위탁하고 한창제지는 자사의 모든 제품 판매를 신풍제지에 맡기는 방식이다.

김중선 한창제지 부회장은 지난 8월 3일 “신풍제지와 1년간의 논의를 거쳐 두 업체의 생산 규모를 줄이는 등 생산 및 판매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장 생산성에서 우위에 있는 한창제지는 생산에 전념하고 신풍제지는 판매를 특화하는 게 전체 그림”이라며 “하반기 중에 손쉬운 작업부터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삼원페이퍼, 페이퍼 조형아트 특별전 개최

삼원페이퍼갤러리는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달간 ‘페이퍼 조형아트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탈리아의 다국적 제지회사인 파비니(Favini)사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 작품들은 주로 파비니사를 상징하는 컬러를 사용, 은색상자에 창작디자인을 가미하는 기법으로 만들어졌다.